암송아지값 폭락세… 이대론 100만원이하 까지 추락

축산농 "정부 보전價 올려달라"

30만원 보전 제한도 풀어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파로 산지소값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암송아지값이 정부의 가격보전기준인 165만원 밑으로 떨어져 전남지역 축산농가에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가격보전기준을 170만~180만원대로 상향조정하고, 최대 30만원으로 묶여 있는 보전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농협의 '축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본격 재개된 지난 27일 전국 소시장에서 암송아지는 평균 164만1천원에 거래됐다.

암송아지값은 1년전인 지난해 6월 평균(225만원)과 지난해 말(198만원)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각각 27%, 17%에 달하며 특히 지난 4월에는 162만원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600㎏짜리 수소와 암소의 경우 6월말 현재 각각 341만원, 420만원6천원으로, 한달만에 4~5% 추가 하락했다. 수소는 최근 3개월 낙폭이 28%에 이르고, 암소도 같은 기간 14% 떨어졌다.

이처럼 소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사상 처음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발동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축산농가에 가격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8~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이후 송아지 가격이 한번도 기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의 기준가격을 기존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올린데다 향후 미국산 쇠고기 본격 수입과 한미 FTA 발효 등을 앞두고 상당기간 소값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정부 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광주·전남한우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송아지값이 165만원 밑으로 떨어질 경우 4개월령 송아지를 이 가격 밑으로 판매한 농가에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100만원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30만원만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한우 3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화순군 K모(56)씨는 "정부의 가격보전기준을 현행 165만원에서 최고 180만원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꿈나무 컴퓨터 경진대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했다.

28일 조선 이공대에서 열린 '꿈나무 컴퓨터 경진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연을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광주시가 주관하고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작년 10월 검역 중단 이후에도 美 쇠고기 4,000t 국내에 풀려

지난해 10월 5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된 뒤에도 국내에 4천t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관세청의 통관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5월말까지 통관이 이뤄진 미국산 냉동 쇠고기는 모두 514t이다.

여기에 지난해 10~12월 통관된 신선 및 냉장 쇠고기가 125t, 같은 기간 통관된 냉동 쇠고기가 3천467t으로 전체 물량은 4천106t이었다.

올해들어 5월말까지 통관된 호주산 냉동 쇠고기가 5만2천487t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않은 물량이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이런저런 경로로 꾸준히 공급됐던 셈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관세청은 작년 10월 5일까지 검역을 통과했던 미국산 쇠고기들이 보세창고에 보관돼있다 이후 통관됐을 가능성을 꼽고 있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5일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불고기용으로 양념해 호주산으로 위장,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광주의 유명 고깃집과 전주의 한 식당에서도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 발각됐다.

검역중단 뒤 통관됐던 물량을 감안하면 그간 미국산 쇠고기들 가운데 상당량이 호주나 뉴질랜드산 등으로 위장돼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주부터 다시 유통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고유가, 서민·지방이 더 힘들다

휘발유·도시가스 보다 '서민연료' 등유·LPG 값 큰 폭 올라

전남 등 지방 주민이나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및 경유값의 상승폭이 휘발유나 도시가스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현재 전남의 등유값은 지난해 5월에 비해 50.0% 급등했다.

이는 LPG·휘발유·경유 등이 포함된 석유류 평균 상승률(30.0%)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체재 성격인 도시가스 상승률(12.8%)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재 도시가스는 대부분의 시 단위, 일부 군 단위까지 들어가 있으며 등유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방 낙후지역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된다. 등유값이 도시가스비보다 4배 가량 올랐다는 것은 전남의 난방비 부담이 그 만큼 도시지역보다 커졌음을 의미한다.

광주도 최근 1년간 등유값이 51.2% 치솟으면서 석유류 평균 상승률(29.1%)과 휘발유값 상승률(20.3%)을 크게 웃돌았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 1년간 전국의 등유값은 46.4% 급등해 석유류 평균 상승률(25.3%)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올랐다.

같은 기간 취사용 LPG가격도 28.1%나 치솟았다. 이는 도시가스 상승률(10.4%)에 비해 2.7배 수준으로, 지방 주민의 취사용 연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사용 LPG 역시 도시가스 배관이 깔리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최근 1년간 경유값 상승폭은 40.7%로 휘발유 상승률(16.3%)에 비해 2.5배, LPG(자동차용) 상승률의 1.8배에 달했다. 경유는 화물·버스·농기계 등에 주로 쓰이는 연료로 휘발유에 비해 서민층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국제 경유가격이 휘발유 상승폭을 크게 추월한 것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산업·수송·발전용 연료 소비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 時局에 웃는 딱 한사람

전남지역 해수욕장

수질 깨끗

전남지역 해수욕장 수질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61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부유물질, 암모니아, 질소, 대장균군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고흥 나로도와 신안 대광, 여수 신덕해수욕장 등 5개 해수욕장은 10점 만점에 8점을 얻어 수질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영향을 받은 서해안 지역 해수욕장들도 모두 6~7점을 받아 해수욕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도 어민 고유가 지원

영어자금 이자 감세

전남도가 어민 영어자금 이자 지원 등 고유가 지원대책 마련했다.

도는 어패류 양식장 에너지절감 시설에 도·시군비 7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 지원대책으로는 도내 어업인들에게 대출된 영어자금 2천억원에 대해 어가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이자 3% 중 2%를 1년간 지원해 주기로 해 어가 당 최고 10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게 된다.

또 어패류 종묘배양장 등 양식장의 연료비 경감을 위해 도내 133곳 양식장에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장비 시설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油價 150달러땐 비상조치

정부, 민간 에너지절약 등 4가지 시나리오 마련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또 유가 단계별로 수급 여건을 감안해 모두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할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이번 주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 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강제적 에너지절감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을 권고키로 했다.

또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를 추가해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골프장 등의 에너지사용 제한, 가로등·옥외조명 제한 등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기수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신85-3번지	1	

2. 개장사유 : 재산권보호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 3개월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개장후 납골
5. 개장장소 : 인 허가된 납골당
6. 신고및연락처 : (유)코뚜레기업 임첨계 011-611-4414 광산구청 사회복지과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 신분증, 도장)
8. 기 타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08년 6월 30일

공고인 : (유)코뚜레기업

채권자 이의신청 및 구주권 제출공고

고려시멘트(주)(이하 "을")는 2008년 6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진기업(주)(이하 "갑")와의 합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을"의 주주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시고 신주권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합병결의에 이의가 있는 "을"의 채권자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합병에 관한 사항
① 합병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② 합병방법 :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고, "을"의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1주당 "갑"의 보통주식 1.5681268주를 교부함.
③ 합병기일 : 2008년 8월 1일
2.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수령에 관한 사항
① 구주권제출기간 : 2008년 6월 30일 ~ 2008년 7월 30일
②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8년 8월 19일
③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수령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2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채권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①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실 수 있음.
② 이의제출을 할 수 있는 채권자 : 2008. 6. 27. 현재 "을"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③ 이의 제출기간 : 2008년 6월 30일 ~ 2008년 7월 31일
④ 이의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산안동 2-3번지 고려빌딩 11층 고려시멘트(주) 인사총무팀

2008년 6월 30일

고려시멘트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524
대표이사 양 원 든

여 수 화 양 지 구

낭도 투자최적지

① (현)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2008년 내에 용도변경 현재용도변경용역중 (돌산청사 관광개발과)
② 2008년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및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③ 화양면과 낭도의 연육교는 현재 기본설계비 20억 배정 (익산국토관리청)
④ 사도는 보존하고 낭도는 개발(관광과)
⑤ 통일교 (주)일상 에서 화양지구(낭도포함)를 2015년 완공목표로 1조5천억원 투자개발

① 임야 2,820평 평당 7만원 (1필지)
② 임야 50,970평 평당 5만원 (총8필지)
③ 임야 5,550평 평당 7만원 (2필지)
④ 임야 7,380평 평당 5만원 (1필지)

투자상담 ☎ 019-641-2000

부 고

강정채(전남대학교 총장)의 어머니 남정심 여사께서 숙환으로 2008년 6월 29일 19시 20분에 운명하셨으므로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 화순전남대병원 장례식장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60)
▣ 발인일시 : 2008년 7월 1일, 오전 9시
▣ 장 지 : 선산 (전남 담양군 월산면 오성리)
▣ 상 주
- 아들 강정채 자부 김 명
- 딸 강정업 사위 송석현
- 손자 강경필
- 손녀 강승효 손서 김기형
- 손녀 강승희 손서 심상구
- 손녀 강승지 손서 김태홍
- 손녀 강민경
▣ 호 상 : 김용우

〈연락처 : 061-379-7434, 062-530-1000〉